

십자가를 진 사람들 ❷

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가셨습니다.
거기서 주님은 각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시며,
당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
오라고 지시한 다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.

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매고 가는데 반해,
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통자 따라왔습니다.
십자가를 걸머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 끝에 당도하여
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.
주님은 첫 번째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.
"아들아, 아주 잘 했다."

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도착했습니다.
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동댕이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
"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!
저한테는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요!
제가 늦게 온 것도 그것 때문이라구요!"

주님은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.
"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."
"그럼 앞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는데,
저만 십자가를 옮기느라 찢찢 땀 이 말씀입니까?"

주님이 그에게 타이르셨습니다.
"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.
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느니라.
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.
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
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란다.
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거지."

출처 -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 / 앤드류 마리아 (2002/03/29)

☞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